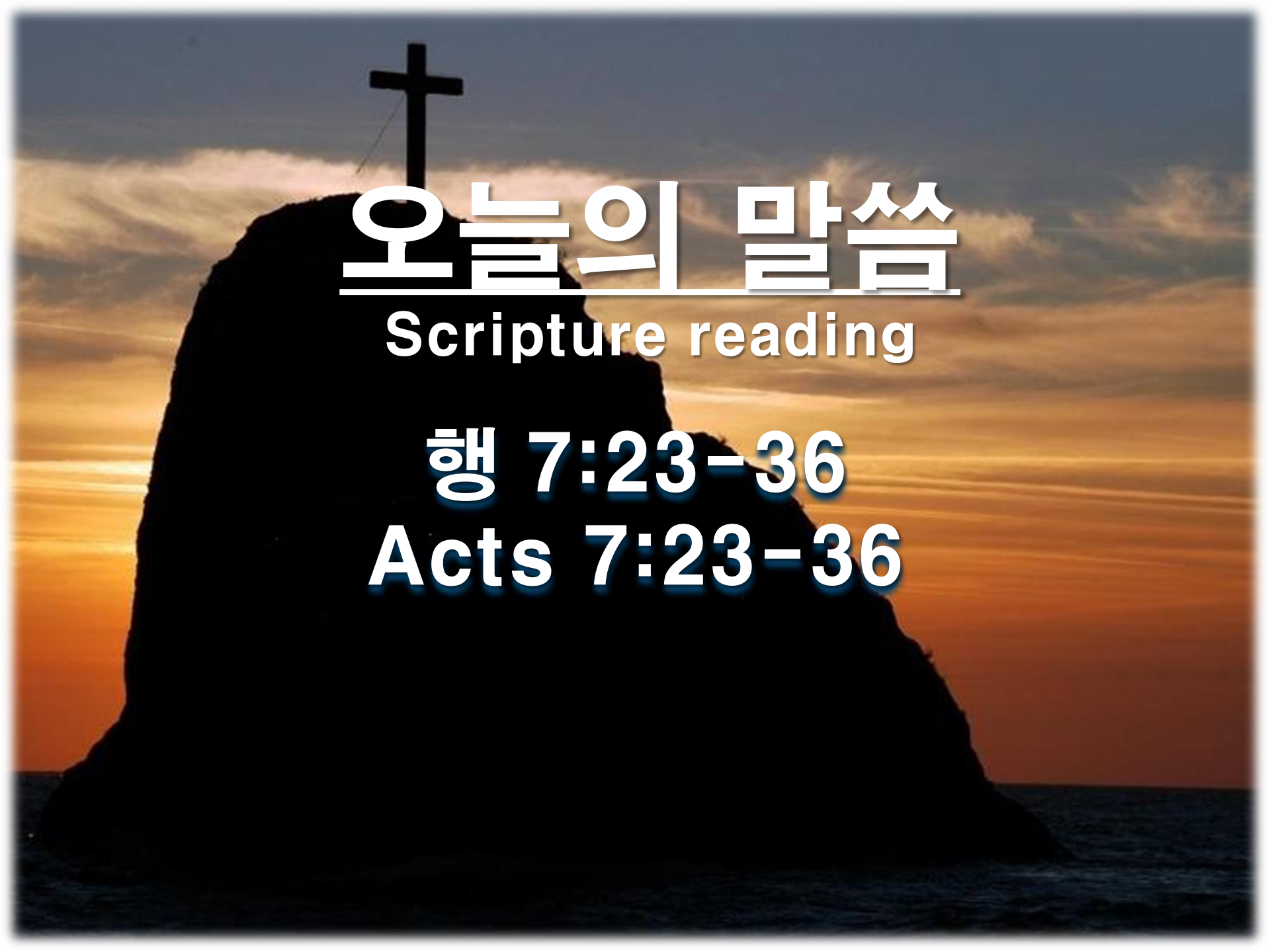

오늘의 말씀

Scripture reading

행 7:23-36

Acts 7:23-36

행 7:23-36
Acts 7:23-36

23 모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, 그의
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
사정을 살펴 볼 생각이 났습니다.
24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
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, 그의 편을
들어,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, 압박
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25 그는 [자기]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,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26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
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, 그들을 화해
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'이 사람들아,
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? 그런데
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?' 하였습니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27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
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
습니다. '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
재판관으로 세웠느냐?
28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,
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?'

행 7:23-36
Acts 7:23-36

29 이 말을 듣고서, 모세는 도망하여,
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.
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.
30 사십 년이 지난 뒤에, 천사가 시내
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
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31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
여겨서,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,
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
32 '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, 곧 아브
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
하나님이다.'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
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33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
말씀하셨습니다. '네 신발을 벗어라.
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34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
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, 또
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.
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
내려왔다.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
보내니, 너는 가거라.'

행 7:23-36
Acts 7:23-36

35 이 모세로 말하면, 이스라엘 백성이 '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?'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,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.

행 7:23-36
Acts 7:23-36

36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,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.

설 교

“사십 년이 지난 뒤에”

I. 모세의 둘째 40년: 은혜로 훈련받은 삶

행 7:23
모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,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 볼 생각이 났습니다.

24절
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, 그의 편을 들어,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,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.

29절
이 말을 듣고서, 모세는 도망하여,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..

29절
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.

게르솜

“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”

엘리에셀

“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”

30절
“사십 년이 지난 뒤에…”

II. 모세의 셋째 40년 : 사명을 감당하는 삶

30 사십 년이 지난 뒤에, 천사가 시내
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
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.
31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
여겨서,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
데,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
32 '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, 곧 아
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
곱의 하나님이다.' 모세는 두려워서
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.

34절
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,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.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.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, 너는 가거라.

33절
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‘네 신발을 벗어라.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.’

35 이 모세로 말하면, 이스라엘 백성이 '
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
세웠느냐?'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, 하나
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
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
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
셨습니다.
36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
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
으며,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
을 행하였습니다.